

공급망 안전판 확보를 위한 비축기지 현장 점검

-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축기지 방문을 통해 운영현황 점검
-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축인 비축물자의 효율적 운영방안 논의

정부는 6월 27일(금) 관계부처(기재부, 산업부, 조달청) 합동으로 군산에 위치한 조달청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비축기지를 방문하여, 비축물자의 확보 및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급위기 발생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비축기지: 국가 필수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핵심 시설로, 국내 산업 생산과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자원의 위기대응력을 제고하는 역할 수행

금번 방문은 '26년 비축 관련 예산안 제출 및 비축전문위원회 개최에 앞서 선제적으로 국내 주요 비축기지의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향후 대응방안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아울러 이날 방문에서는 수요예측-구매-입고-보관-방출 등 실물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비축이 공급망 충격의 완충장치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재부 이주섭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현장에서 비축 담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비축물자의 재고 및 방출 현황', '품목별 수급동향 및 신규 또는 추가 비축 필요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 광물과 일부 수급 상황 변동성이 큰 물품에 대해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국내외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략물자 비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위기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정책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4-215-7870)
		담당자	사무관	송재경 (jksong14@korea.kr)